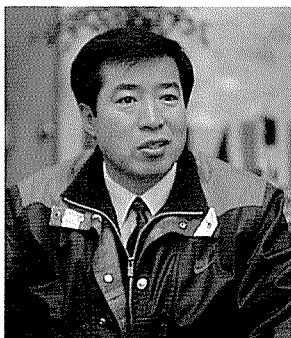


소비자의 목소리로 좋은 제품 생산

형틀생산업체 우정공업사

20년 동안 제과 제빵 형틀을 전문으로
생산해 온 우정공업사는
국내 수요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이다.
끊임없는 자체 기술 개발과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품 제조에 힘써 온 우정공업사는
올해 코팅 처리 공장 건립과
중국 시장 진출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예정이다.



지종훈 사장

500여 형틀 제작 국내 수요 90%담당

하나의 좋은 제과 제품이 나오기 위해선 숙련된 기술인의 뛰어난 솜씨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인적 요소 외에도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최상의 설비가 결여되지 않는 까닭에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중 완성되기 이전의 제품을 담아 완성품의 형을 잡아주는 그릇이라 할 수 있는 형틀 제품은 보기엔 단순한 소도구이지만 제품의 열전도 여부에 따라 완제품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고, 외형 면에서도 고객의 수요 욕구를 이끄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

그런 면에서 각종 제과 제빵용 형틀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우정공업사는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업체라 할 수 있다.

우정공업사가 제과업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1975년. 서울 천호동에 조그만 사무실을 임대해 3명의 직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처음 가스 오븐을 제작했던 우정공업사는 3년 동안 회사의 토대를 구축하며 1978년에 40여평 규모의 제과 제빵용 형틀 생산 공장을 마련해 본격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우정공업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구리시 인창동 공장의 각종 빵틀, 바게트, 냉

각팬, 피자팬, 파이팬, 케이크틀, 식빵 케이스, 무스 링, 소형 피자 틀을 비롯해 성수동 공장의 믹서 볼, 스텐레스 제품에 이르기까지 500여 종류. 틀에 관한 한 국내에 취급되는 대부분의 제품이 여기에서 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내 수요의 90% 가량을 제작하는 대표적인 업체답게 지난 93년 신축한 150평 규모의 우정공업사 공장은 지하 1층과 2층에는 철판 재단기, 유압기, 프레스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고 1층에는 사무실과 금형실, 생산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마련돼 있다.

현재 우정공업사의 직원은 20여명. 직원을 위해 건물 3층에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고, 가족같은 분위기여서인지 설 틈틈이 돌아가는 기계에 맞춰 분주히 움직이는 생산 직원의 손길에는 활력이 넘쳐난다.

자체 개발 및 소비자의견 수렴, 제조에 반영

이들 기술자의 손에 의해 생산되는 우정공업사의 제품은 크게 4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우선 철판이 제품 크기에 맞춰 재단되고 제품의 형태를 결정짓는 금형 틀에 의해 유압기에 눌러진다. 그 다음 프레스기를 거쳐 제품이 나오면 가장자리를 접어 주는 마지막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하나의 제품이

완성된다.

언뜻 보기엔 너무도 단순한 공정이다. 그러나 우정공업사는 틀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우수한 코팅 처리, 형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굽기 온도가 중요한 빵의 경우 틀의 두께가 일정치 않으면 타버리거나 색깔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것은 물론 불륨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기 때문이다. 또 코팅의 경우도 우수성 여부에 따라 제품 분리시 눌러 붙지 않아 벗겨짐이 적어야 온전한 제품이 제조될 수 있기 때문에 듀퐁사의 실버 코팅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틀의 형태는 완제품의 외형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품 제조상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고려해 반영시킨다.

이처럼 우정공업사는 보다 나은 틀 제품의 생산을 위해 외국 제품 중 국내에 적용할 만한 것을 수집해 적용하는 자체 개발 노력은 물론 사용자측인 제과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품 제조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은 당일 주문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품은 창고에 보관되는데 형틀의 성수기가 9월에서 12월 사이여서 이때 매출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형틀 제품의 제조 방식 또한 특이한 형태를 지닌다. 총 500여 가지에 달하는 제품을 일시에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종류별로 하루에 한두 품목씩 1년에 공급할 물량만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현재 90%에 이르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정공업사는 89년 이후 성장을 가속화해 지금은 건실한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물론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별다른 경쟁 업체가 없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창립부터 철저한 신용과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재는 서울·경기 지역의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우정공업사는 제품



1. 500여 가지가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우정공업사는 국내시장수요의 90%를 공급한다.

2. 끊임없는 자체개발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좋은 제품 제조에 힘쓰고 있다.

3.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전국의 60~70여 도·소매상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

을 전국의 60~70여 도·소매 대리점에 공급할 뿐 소비자에게 직거래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생산에만 전념하는 현재의 경영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팅처리 공장 건립과 중국 진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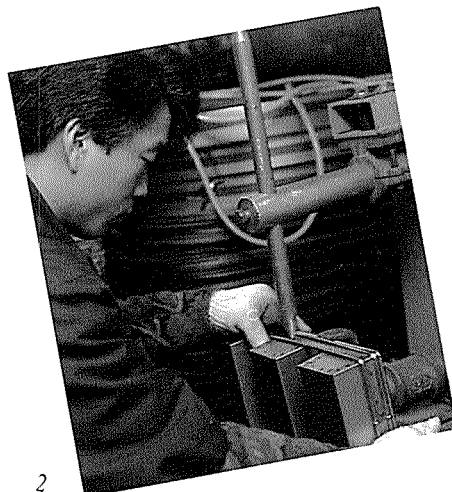
외길 20여년을 제과 제빵용 형틀 생산에만 전념해 내실있는 기업으로 성장한 우정공업사가 제과업계에 기여한 공은 작지 않다. 예전에는 형틀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외국의 수입에 의존해야 했으나 우정공업사로 인해 우리제품을 가질 수 있었고 이제는 거의 국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동안 우수한 제품 생산으로 인정받아 온 우정공업사는 조만간 더 진일보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설 계획이다. 현재 구리시 인창동 공장 부근에 별도의 코팅 처리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은 코팅 처리를 외부 업체에 하청을 줘 공급받았는데 원료 배합 및 열처리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더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타진해 오던 형틀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으며 비좁은 제품 보관 창고의 확장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조만간 코팅 처리 공장 건립으로 자체를 제외한 전 과정을 일괄되게 책임생산해 더 우수해진 우정공업사의 제품을 국내와 중국 시장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수한 제품과 철저한 신용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정공업사의 성장 배경은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개선에 이익을 재투자하고 외국 제품보다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속에 있다. (글 박종선)



2

3